미국에 탄생한 '달라이라마 거리'

리치먼드시, 달라이라마 美의회 골드메달 수여 기념

박영빈 객원기자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도 리치먼드시에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겼다. 이 특별한 소식을 10월 18일 리치먼드시의 지역매체 '리치먼드 콘피덴셜' '리치먼드 스탠다드'가 보도했다.

이달 초, 북캘리포니아 티베트인협회(TANC)는 협회 본부건물이 위치한 거리 명칭을 달라이라마 거리로 변경해 줄 것을 리치먼드시에 요청했다. 개명을 요청한 거리는 리치먼드시 북쪽 헌팅턴 지구의 콜롬비아가(街)와 산 호아킨로(路) 사이 약 1블록 가량의 길이다.

TANC 측은 "개명 요청의 이유는 12년 전 미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의회 골드메달'을 달라이라마가 수여한 것을 기념하고, 그분이 세계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5년 전 리치먼드시를 직접 방문했으며, 시는 매년 7월 6일을 '달라이라마의 날'로 선언한 바 있다.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10월 17일 저녁, 약 70여 명의 망명 티베트인들과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즈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개명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장의 단상에는 2014년 달라이라마가 협회를 방문했을 당시 앉았던 법좌가 놓이고, 법좌 위에는 달라이라마의 사진이 안치됐다.

티베트인협회, 거리 개명 요청
시의회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10월 17일 개명기념식 열려
"달라이라마 같은 행위 기대"

기념식에 참석한 티베트인들은 달라이라마 거리라는 이름이 새로 붙은 안내표지에 전통적인 공양물인 흰 스카프를 묶으며 경의를 표했다. TANC의 부회장인 잠양 된둡 씨는 "달라이라마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느낌을 받는다"며 "앞으로 많은 이들이 이 거리에서 달라이라마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기쁘다"고 전했다.

티베트 불교의례와 함께 진행된 기념식에서 TANC 회장인 텐진 랑돌 씨는 "리치몬드시가 변함없이 망명 티베트인들의 지지자가 되어 준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리치몬드의 연대는 티베트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개명은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에겐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의미를 가지며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라고 기쁨을 표했다.

랑돌 씨는 "TANC 본부가 접한 길이 달라이라마 거리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를 계기로 TANC는 망명 티베트인들과 미국시민들 간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TANC는 현재 리치먼드에 거주하는 망명 티베트 어린이들을 위한 티베트어 교육을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곧 제2국어로 티베트어를 가르치는 공인초등학교를 TANC의 명의로 시작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 축사를 맡은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이름에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은 이름에서 행해지는 행위에서 나온다. 달라이라마라는 이름에는 많은 힘이 있다. 그분의 이름이 붙은 이 길에서 달라이라마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달라이라마 거리로 변경된 표지판. 사진출처=리치먼드 컨피덴셜

부다가야서 출가자들 공양물 다툼

우안거 성만 알리는 회향법회
"공양물 뺐겼다"며 몸싸움 벌여
위장 출가자인지 조사도 진행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불교 최고의 성지 부다가야에서 출가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0월 14일 인도의 '타임즈 오브 인디아' '원 인디아' 등 현지 언론들은 이 공양물 분배를 두고 다툼을 벌인 스님들의 소식을 보도했다.

사건은 10월 13일, 부다가야의 마하보디(Maha Bodhi) 대탑에서 일어났다. 당시 대탑에서는 부다가야 국제불교협회의 주관으로 우안거가 성만했음을 부처님께 알리는 회향법회가 봉행됐다. 이번 법회는 베트남에서 온 불자들을 공덕주로, 부다가야에 상주하며 우안거를 성만한 내빈 스님들에게 가사와 보시금을 공양 올리는 식순이 준비됐다.

하지만 공양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행사장 한쪽에 앉아있던 출가자들 중 일부가 소동을 일으켰다. 이들 중 몇몇은 받았던 공양물을 빼앗겼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감정이 격화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특히 싸움을 시작한 두 스님 중 한 스님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양물의 배분문제로 몸싸움을 일으킨 스님들. 사진출처=타임즈 오브 인디아

마하보디대탑의 소임자인 찬달리 스님이 경찰에 제출한 경위서 따르면 "행사장 한쪽에 4~50여 명의 출가자들이 앉아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법회에 내빈으로 초대받지 않은 이들로, 본래 공양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많은 불교도들이 충격을 받았으며,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유감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당시 법회에 참가했던 여러 불자들도 "문제를 일으킨 출가자들은 법회장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 어떤 식순에도 참석하지 않은 별개의 그룹"이라고 증언했다. 어느 불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에서, 가사를 입은 출가자들은 오히려 재물을 탐해 싸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하보디사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아비섹 싱 씨는 "CCTV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 이들을 확인했으며, 주범인 2인에 대해 형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두 사람이 적절하게 수계를 받은 출가자인지, 혹은 출가자를 가장한 걸인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비섹 싱 씨는 "만약 실제 등록된 출가자라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서 국제불교협회는 두 사람을 멸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부다가야에서는 최근 불교 출가자를 가장한 걸인 혹은 타종교 수행자들의 훼불행위와 과도한 구걸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쓰촨성 불상이 사라진다

링윈산 종교상징 은폐 나선 중국공산당

4A급 관광지 링윈산 일대서
마애와불 · 거대석불 은폐해
종교상징물 제거 방침 거세

중국공산당이 불교와 도교의 순례지로 유명한 쓰촨성 링윈산의 종교상징 은폐를 위해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매거진 '비터 윈터(Bitter Winter)'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링윈산 내 수천 개의 종교상 등을 은폐하는데 최소 약 113만 달러(한화 약 13억2000만원)를 사용했다. 쓰촨성 남서부 난충시에 위치한 링윈산은 중국 내에서도 4A급 관광지로 선정될 만큼 자연 · 문화적 요소가 뛰어난 곳이다. 4A급 관광지는 가장 높은 5A급의 바로 다음 단계로, 중국 내에서도 많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관광지다.

링윈산은 지난해 9월 모든 종교적 요소를 제거하라는 중국공산당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개의 대형 조각상과 수천 개의 소규모 조각상, 기호, 표지판 등이 사라졌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적 조각상과 관련된 모든 홍보 콘텐츠도 관광지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됐다.

중국공산당의 명령에 의해 가려진 대표적인 종교 상징물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을 묘사한 길이 72m의 마애와불이다. 마애와불은 대나무 구조물과 대형 천으로 가려져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지역주민에 의하면 마애와불을 가리는 데는 한화 약 3억3000만원이 소요됐다. 이는 마애와불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예산보다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광객은 "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으로 인력과 자원을 낭비해 종교상징물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높이 99m 크기로 조성되던 석불은 미완성 상태로 작업이 중단됐다. 링윈산의 가장 유명한 명소로 꼽히는 미완성 아미타석불은 높이 99m로 설계되고, 주변 절벽에 9999개의 작은 불상을 조각해 '만불'을 표현하려 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종교 상징물 제거 방침으로 인해 불상 상체(높이 48m)와 7000개의 작은 불상만 완성된 뒤 공사가 중단됐다. 작업자들은 이제 석불을 가리기 위한 옹벽 건설작업에 나섰으며, 여기에는 한화 약 9억4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33점의 관음석상, 24점의 나한 석상, 11점의 석굴 등이 담벼락이나 대나무 등에 의해 가려졌다.

불교 상징물 외에 도교사원의 뜰을 장식한 5개의 큰 조각상도 제거돼 건물만 남게 됐으며, 도교의 십이금선(十二金仙) 중 하나인 자항진인(慈航眞人) 동상은 나무판자로 가려져 있다가 나중에 아연도금 철판으로 밀봉됐다.



길이 72m에 달하는 마애와불을 가리기 위해 대나무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 사진출처=비터 윈터

비터 윈터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의 이 같은 방침은 종교상징물을 가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폭약 등으로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다만 링윈산은 산사태 등 별도의 재난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종교 상징물을 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링윈산 인근 주민들은 "지방관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경찰을 배치해 동상 은닉 작업을 방해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호소했다.

한 마을 주민은 "마오쩌둥 시대에 사원이 철거되고 불상이 파괴된 일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다. 시진핑의 명령에 누가 감히 싫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윤호섭 기자